

달라도 너무 다른 쌀 생산량 전망 올해 363만~368만 t 은 맞을까

농경면적 69만 7714ha·생산량 감소 예측
쌀 수급대책 미흡 등 쌀값 폭락 빌미 제공...치밀한 통계 분석 필요

올 햅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 생산량이 363만~368만 t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매년 정부의 쌀 생산량 예측 결과가 실제 쌀 생산량과 차이가 크다니 쌀 소비량,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 물량 등을 종합한 쌀 수급대책도 미흡해 결과적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치밀한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발표한 '2024년 10월 쌀 농업관측' 자료에 따르면 쌀 생산 단수는 10a(아르) 당 520~527kg으로, 지난해(523kg)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됐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69만 7714ha로, 전년(70만 8012ha) 대비 1.5% 감소했다. 면적 대비 쌀 생산량과 벼 재배면적을 종합한 올해 쌀 생산량은 363만 8000~368만 7000 t 수준이라는 게 농경연 연구원 분석이다.

농경연은 지난해(370만 2000 t)와 평년(376만 9000 t)에 견줘 각각 0.7~2.0%, 2.4~3.7%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농경연 뿐 아니라, 통계청, 농진청 등 관련 기관들이 매년 수확기를 앞두고 발표하는 쌀 생산량 조사 결과는 정부의 쌀 수급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하지만 농민들 사이에서는 쌀 수급정책에 반영되는 쌀 생산량, 생산비, 소비량 등의 통계 자료가 현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당장, 전남도의 경우 '쌀값 안정화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부정확한 쌀 생산량 예측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전남도는 당시 "정부는 지난해 10월 쌀 7만 8000 t 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쌀 수급

정책을 수립했다가 20만 t 을 격리하고도 현재 15만 t 이 넘는 쌀이 남아도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쌀값 폭락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전남도는 지난해 쌀 재고량과 올해 벼 작황 호조, 벼 감축면적(1만 ha) 등을 감안하더라도, 올해도 최소 40만 t 이상 초과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봉식 전국쌀협회 광주·전남 사무처장은 "지난해 통계청은 쌀 예상 생산량을 368만 4000 t 으로 예상했지만, 농촌경제연구원은 370만 3000 t 으로 전망했다"며 "산지쌀값과 직결되는 생산량, 소비량 등의 주요 조사는 정부의 쌀 수급정책 반영을 염두에 일관된 기준과 더욱 세밀화된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지 쌀값(80kg)은 지난 25일 기준 17만 4592 원으로, 지난 2022년 9월 25일(15만 5016원)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인 평년가격(19만 1022원)과 비교하면 무려 8.6%(1만 6430 원)나 떨어졌다. 20kg짜리로는 4만 3648원 수준이다. /장윤영 기자 zyang@kwangju.co.kr



"농업 쉽게 알려드려요"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유용곤충 전문가, 수출농업, 은퇴예정자 맞춤형 영농설계, 고품질 만감류 재배 기술, 프레젠테이션 활용능력 등 5개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125명을 모집한다. 유용곤충 전문가 양성 과정은 오는 7일부터, 은퇴 예정자 맞춤형 영농설계 과정은 23일부터 3일간 도내에서 은퇴예정인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현장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 <전남도 제공>

전남도, 공익직불금 부당수급 차단 총력...7200여 농가 현장점검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 등

전남도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관외자 등 7200여 농가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은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산물 판매 정보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해 부정수급 감증을 강화한다.

읍면동에서는 직불금 신청자 중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7200여명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주변인 탐문조사, 농업인 입회조사 등을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시·군에서는 농관원 사무소와 2인 1조로 신규,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390명을 합동 점검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고의적, 거짓 등 부정행위 방법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직불금 등록취소와 3-

8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또한 고발 조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연중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도 농관원과 함께 자가격중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우린 어떤 버섯을 먹어야 할까?

식용버섯만 400여 종...위험한 '야생' 찾을 이유 없어

수확의 계절 가을엔 모든 게 풍성해진다. 아침 저녁 상차림도 마찬가지다. 필자의 가족 식탁에도 버섯을 좋아하는 아내 덕에 갖가지 버섯을 활용한 푸짐한 상이 차려진다.

지금이야 시절이 좋아져 몸에 좋은 버섯을 자주 접할 수 있지만, 버섯 재배가 본격화하기 전인 삼사십 년 전만 해도 이 같은 호사는 생각도 못 할 일이었다.

이 같은 일은 산골에서 농사일 외에 가뭇돈을 벌기 위해 산에 올라 버섯을 채취하고, 농사하면서 여유가 생기면 뒷마당에 종균을 배양해 버섯을 키웠던 부지런한 농부가 있어 가능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느타리버섯을 포함해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만 2300가구에 달할 정도지만 말이다.

버섯은 균류(菌類) 중에서 대형 자실체(子實體)를 형성하는 무리의 총칭을 이르는 말로 우산 모양을 이루는 것이 많고 주로 그늘진 땅이나 썩은 나무에서 자란다. 특이한 것은 씹으면 고기 맛이 나거나 나물처럼 취급하는 버섯이 식물도, 동물도 아니라는 점이다. 생물학적으로 균류에 속하는 버섯은 동식물 분류의 매우 특별한 경계에 있다. 또 포자를 이용해 번식하는데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식용버섯과 독버섯으로 나뉘며 독성의 유무, 맛과 냄새에 따라 식용 등 각각의 쓰임새가 정해진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요 식용버섯은 표고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목이버섯 등으로 미네랄, 무기질, 단백질이 풍부해 우리 몸에 유익하다.

종류도 다양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식용버섯만 400여 종이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소혀버섯과 노루궁뎅이버섯, 망태버섯 등 특이한 이름을 가진 것도 있다. 소혀버섯은 정말 소 혀바닥처럼 생긴 버섯이다. 소고기 육회의 식감이 나는 덕에 회로 즐긴다. 소 생간과 닭은 소간 버섯도 있다. 또 노루궁뎅이버섯은 북

실복실한 생김새가 새하얀 털 몸치를 꼭 빼닮았다. 주로 약용으로 쓰는데 최근엔 인공재배에 성공해 식자재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망태버섯은 늘어진 그늘 같은 생김새가 마치 하얀 면사포를 덮았대서 숲속의 귀부인이라 불린다. 고급 약재나 식재료로 두루 쓰인다.

귀하다귀한 자연산 송이를 대신해 나온 새송이, 양송이는 이제 찬거리 채소처럼 일상에서 구매했을 수 있다. 식감이 좋은 팽이버섯은 요즘 음식에 감초처럼 두루 쓰이는 식자재다. 이 버섯들은 꼭 가을이 아니라더라도 사철 맛볼 수 있다.

우리가 주로 먹고 있는 식용 재배버섯은 야생 버섯을 수집해 교배한 후 인공재배용으로 육성한 버섯으로 야생버섯과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팽이버섯만 해도 그렇다. 보통 팽이버섯은 야생 팽나무에 기생해 자라기 때문에 팽나무버섯이라고 하며 갈색인데, 우리가 흔히 먹는 흰색 팽이버섯은 야생 팽이버섯을 개량한 품종이다.

문제는 야생의 독버섯이다. 이 시기에 나들이와 산행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야생버섯을 먹고 중독되는 사고가 매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데 국내에 분포하는 버섯 2220종 가운데 독버섯이거나 몸에 독소로 작용하는지 불분명한 버섯이 7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야생버섯은 거의 독버섯이라고 봐야 한다.

한데 우리는 왜 국산과 수입산은 잘 구별하지 않으면서 자연산을 선호하는 걸까? 산삼과 인삼, 자연산 회와 양식 회의 영양 성분에 따른 가성비 따지는 시대인데 말이다.

이상기후로 야생의 송이버섯이 나지 않아 송이 1등급 품의 kg당 공판 가격이 160만 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송이나 능이, 영지버섯은 아닐지라도 안전하고 값싼 재배 버섯으로 맛있고 건강한 식탁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은 자연이 주는, 우리 농업이 주는 축복이 아닐까. /bigkim@kwangju.co.kr

'최대 40%' 배추 할인 지원 9일까지 연장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실시해 온 배추 할인 지원을 오는 9일까지 연장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배추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대 40% 배추를 할인하는 지원 정책을 오는 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해 배추 등 엽채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배추값 할인 지원을 실시해왔다.

다만, 농식품부는 도매가 하락이 소매가 하락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유통업체에서 진행하는 할인 지원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오는 9일까지 지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로 마트, 온라인몰(전통시장 온라인몰 포함) 등에서 정부 할인 20%와 유통업체 자체할인 최대 20%를 포함해 최대 40% 할인가에 배추를 구매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yang@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